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1년 7월)

일시	2021. 7. 21. 수. 오후 5시	장소	광주MBC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김순정, 김유선, 김요수, 김정희, 김형순, 류한호, 양초롱, 이상석,정은진, 최영호, 최정욱(11명)	
	회사	김낙곤 사장,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박수인 시사보도본부장, 권영수 경영심의팀장(4명)	

■ 회의 내용

- 권영수 경영심의팀장 : -15명 시청자위원 중 11명 참석했다. 성원이 됐으므로 시작하겠다. 위원장님께서 진행해주시겠다.
- 류한호 위원장 :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주셔서 반갑다. 광주MBC도 좀 더 새로운 자세로 사장님과 더불어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화돼 가는 분위기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다. 지역방송사의 존재는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정보와 현안을 전달하고 토론을 매개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 광주MBC가 일을 잘해나가는 것 같다. 수고 많은 데 대해 감사드린다.
- 김낙곤 사장 : -새로 구성된 이후 두 번째 회의를 하게 됐다. 무더위와 코로나 두 가지가 겹쳐서 시민들도 힘들고 우리 주변 농어촌, 건설 현장 등 모든 곳이 어렵다. 무더위 속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코로나 상황이 안타깝다. 좀 더 안정화 되길 바란다. 지난 첫 회의에 못 나오셔서 오늘 처음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 말씀 들어보면 좋겠다.
- 최정욱 위원 : -만나면 반가운 MBC다. 시청자위원이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예리하게 좋은 의견을 많이 건의하고 공영방송으로서 MBC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 최영호 위원 : -시청자위원으로 참여가 처음이다. 그동안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중심으로 많이 시청했는데 시청자위원으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광주MBC를 많이 시청하겠다. 최선을 다해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
- 김유선 위원 : -저는 특정 분야에 있다. 발달장애 자녀가 있고 부모들의 아픔과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 성인이 돼서 다양한 삶 속에서 빚어질 수밖에 없는 다양한 일들을 정책적으로, 활동적인 부분으로 제안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다. 시청자위원으로서 마음이 무거웠다. 그렇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회에 참석했다. 장애인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문화나 다양성이 만들어지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
- 류한호 위원장 : -주요 업무 보고를 해달라.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광주 양동시장에 '핑크피쉬 레스토랑'을 6월 28일에 오픈했다. 특집다큐 <핑크피쉬> 시리즈 제작에 이은 후속 결과다. 나주시 승격 40주년 기념해 <문화콘서트 난장>에서 김장훈, 전상근, 밴드월리 편 제작이 7월 1일 나주 난장곡간에서 열렸다. <풍류달빛공연>이 인기 국악인 조엘라, 이춘희 선생님 등이 출연해 제작했다. 스포츠 콘텐츠 <오늘도 출근>이 KCA 제작지원 선정에 따라 제작에

착수했다. UHD 특집 다큐 <마한>, <리플레이스>, <레드디쉬: 김치>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지상파와 연계한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강화하고 있다. <광주MBC> 13만, <트로트맛집> 16만, <얼씨구TV> 10만, <Real Music리얼뮤직> 6.2만, <광주MBC 뉴스> 3.7만, <전설의 타이거즈, 1.8만>, <광주보라> 7.6천, <리플레이스> 9천 등 구독자를 확보 중이다. 크로스미디어 콘텐츠 <리플레이스> 앱 개발을 하고 있고 8월에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문화콘서트 난장>은 난장곡간이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서 8월 이후에는 광산구 문예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 <풍류달빛공연>은 국악쪽에서 유명 그룹인 악단광칠 편 녹화가 8월 28일에 있을 예정이다.

- 박수인 시사보도본부장 : -학동 재개발구역 붕괴 사고 관련해서 수사속보, 문제점에 대해 취재하고 보도했다. 주로 다뤘던 게 구청에서 사고 얼마 전 현장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 조합장의 비리의혹, 전에 있었던 3구역에서도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 지금 4구역의 보류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한다. 시공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다. 수사 결과가 다음 주중에 발표가 될 거 같다. 역대의 뒤통을 받고 업체 선정에 관여했던 정황까지 보도가 됐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릴레이가 시작되고 정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비전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스튜디오에 출연하거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늦장마 온다고 했는데 2, 3일 폭우 온 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 전남 남부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이재민들의 보상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광주도 재확산에 진입한 것 같다. 델타변이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백신 관리 문제 등도 보도했다. <윤근수의 시사본색>도 경선 후보가 광주에 올 때마다 일정 잡아서 직접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의미, 달빛내륙철도 등 잘 전달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작년에 섬진강 홍수피해가 컸는데 그 부분에 대해 원인과 복구가 어떻게 돼가는지 집중해서 다뤘다. 앞으로 계획은 10월 창사 특집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대선 경선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슷한 시기에 치러질 것 같다. 추석 끝나고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다. 후보들을 시청자에게 많이 노출하고자 대담이나 초청토론을 기획하고 있다. 염려되는 게 휴가철이나 추석에 코로나 확산인데 잘 기획하겠다. 올림픽 기간동안 메인뉴스 시간이 들쭉날쭉한다. 정시성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류한호 위원장 : -콘텐츠 부문과 시사보도 부문 업무 보고가 있었다. 내용 관련해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해달라. 콘텐츠 KCA 제작지원을 받은 숏폼 콘텐츠라는 게 원가.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기존 제작지원을 받으면 보통 60분 다큐가 전통적인 형식인데 지금은 10분, 5분짜리 짧은 콘텐츠를 제작한다. 나중에 60분짜리로 본 편성하기 전에 에피소드 형식으로 클립으로 만들어서 SNS, 유튜브에 올리는 콘텐츠를 말한다. <오늘도 출근>은 여러 직장인의 사연을 다룬다. 가령 장애가 있는 직장인의 경우 등 케이스가 다 다르다. 한 사람마다 에피소드를 따로 만들어 60분짜리 텔레비전 편성하기 전에 SNS나 유튜브에 올리고 풀 버전을 나중에 편성하는 유통방식이다.

- 류한호 위원장 : -전통적인 소비방식과는 다른 거 같다. 미리 분할한 콘텐츠를 먼저 소비하고 모아서 지상파로 돌리는 방식이다.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 스마트폰으로 미디어를 소비하니까 오래 못 보는데 짧은 콘텐츠를 가지고 소비를 많이 한다. 다소 뜻밖인 게 지상파를 나중에 한다는 거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 또 하나 관심 있게 본 것은 디지털콘텐츠의 구독자 확산 속도는 어떤가.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10만이 넘는 채널은 3년 정도 된 채널이다. 대부분 매체가 메인 채널이 하나씩 있다. 지역방송이 만든 채널 중 트로트 채널이 경쟁력이 있다. 광주 MBC의 특징적인 채널이라면 국악 채널과 리얼유직처럼 <난장>과 연계한 채널이다. <전설의 타이거즈> 같은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이다. 구독자 수와 조회 수는 좀 다른 특징들을 각각 가지고 있다.
- 김요수 위원 :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의 흔적을 보여준 영상이 짧게 나왔다. 광주에서는 산동교가 첫 전투였음을 알게 되었다. 잊고 있던 전쟁의 끔찍함, 불과 70년 전 일로, 우리 할아버지들이 겪었던 일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여러 증언과 말보다도, 영상과 자막이 잊힌 우리의 기억을 되살렸다. 한국 전쟁을 겪지 않아서 전쟁의 아픔을 모르는 세대에 한 번쯤 떠올려보게 하는 의미 있는 영상이었다.
 -남도사랑 캠페인으로 구례 편에서는 구름 속에 새처럼 숨어 사는 집이라는 운조루, 그중에서도 부엌에 누구나 열 수 있다는 '타인능해'가 적힌 쌀독, 지리산의 멋진 영상이 사람의 눈길을 끌고, 사람의 마음을 끌었다. 코로나가 끝나면, 발길도 끌어모을 수 있는 영상이다. 영광 편에서는 달구경하기 좋은 낙월도, 왕소나무 군락이 있어서 사진 찍기 좋은 송이도, 씨큐리 바위가 있는 낭만의 섬 안마도의 소개도, 코로나 시대에 눈으로 호강을 시켜 주었다. 광주문화재단에서 하는 무등산의 '쓰'레기를 '담'는다는 '쓰담' 산행길 영상도 울림을 주고 실천을 다짐하게 하는 좋은 영상이다. '캠페인'은 언제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생각해봤다. 캠페인이라는 말이 좀 옛날 세대 냄새가 난다. 우선 이름을 좀 바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만!'이랄지, 어느 방송사였는지 기억은 없지만 그런 노래가 있었다. '우~리 이제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하듯이, CM 송처럼 토막 노래 들려주고, 협찬을 받아서 영상과 자막으로, 우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캠페인을 펼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울림을 주고, 눈길과 발길을 끌어모으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민들에게 어젠다를 주는 영상 말이다. 또 옛날에 YTN에서 했던 '돌발영상'이 있었다. 짧지만 임팩트 있게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어떤 때는 통쾌함을 주기도 했고, 어떤 때는 알지 못했던 일을 발가벗긴 듯 보여주었다. 그러한 방식의 '지금 광주에선' 혹은 '깜짝 뉴스' 같은 이름으로, 시대에 맞게 짧은 영상 제작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싶다. 사진 한 장으로 생활 속 불편함을 보여줄 수도 있고, 자막으로 불평등을 깨닫게도 해주고, 그림으로 불공정과 이기주의를 드러낼 수도 있다. 굳이 가르치려 들지 않아도, 영상으로 깨닫게 하고, 굳이 지시하지 않아도, 칭찬으로 더 좋은 생활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을 했다. 이러한 '잠깐만' 영상이나 '깜짝 뉴스'는, 다시 광주MBC 유튜브에서 2차 생산을 하여, 파급효과를 높여도 좋을 듯싶다.
- 김정희 위원 : -<윤근수의 시사본색>에서 여순사건 특별법과 달빛내륙철도 관련해 다뤘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달빛내륙철도 계획안 확정 두 가지에 대한 토론이 약 21분 정도이고, 대선 관련 논평을 9분 정도 진행했다. 그리고 '정면응시'에서는 섬

진강 댐 방류로 인한 구례 수해에 관한 심층 보도가 20분 정도 편성되었다. 토론 및 심층 보도 모두 시의적절한 주제 선택이고, 지역민들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주제 선택을 높이 평가한다. 토론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및 달빛내륙철도 계획안 확정이 약 20분 정도 편성되었다. 각 주제별로 10분 정도 시간이 편성된 셈이다. 따라서 내용에 대한 설명과 토론이 짧다는 느낌이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 왜 지금 이 사안이라는 의문이 있다. 즉 73년 전에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문제를 이제 입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풀지 못한 숙제가 무엇인데 법으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달빛내륙철도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했던 것 같다. 있으면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구호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화물, 어떤 사람을 수송할 것인지, 이 철도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좋은 대답을 내놓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할 것이다. 특히 조오섭 의원은 예타면제를 강하게 주장하였는데, 사실 앞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예타면제 주장은 서로 충돌하는 모양이 크다. 이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 모두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무엇인지 지역민들이 관심 갖고 지켜보아야 할 점은 있는지 토론도 필요할 것 같다. 전반적으로 토론 시간이 짧았던 것이 다소 아쉬웠다. 약 10분에 걸쳐서 대선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주로 민주당 예비경선에 대한 관전평을 이야기하는 정도였다. 광주 전남지역에 산재한 과제들이 많다. 특히 전남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농업의 문제, 군공항 문제 등 현안들도 많다. 대선 과정은 광주 전남지역의 산재한 과제를 해결하는 지렛대가 되어야 한다. 지역에서의 대선 토론도 단순한 인물 관전평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거시적으로 풀어내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면응시’ 코너에서는 비 피해 문제 및 작년 수해 복구를 다뤘다. 여름 장마철 수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피해가 나고 1년이 넘었지만 구례 수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 저도 놀랐다. 좋은 주제 선택이 돋보였고, 보도의 방향, 문제점 지적까지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진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 김형순 위원 : -매일 아침 보는 <뉴스투데이>의 시작 화면들이 아침인데 너무 어두워 상쾌한 기분이 없으니, 좀 더 밝고 힘찬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 건설 현장에서 동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분석되고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어떠한 사고가 나더라도 끝까지 전무가 집단에서 명명백백하게 그 원인을 밝히고, 교육 영상까지 만들어 교육 전파한다. 미국의 플로리다 건축 붕괴 사고도 현재 전문가들에 의해 철저히 조사 중이며 1~2년에 걸쳐 기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원인이 파악되고 그 결과에 따라 맞는 규정이나 대책이 수립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고 당시만 요란하고, 몇 달도 안 되어서 사고분석이 완료되고 단답 형식 영터리 대책이 만들어진다. 또 시간이 지나면 아무도 관심이 업소 감독관청은 대충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만 급급하다. 이번 기회에 왜 우리는 반복적 사고가 계속되며, 미국이나 선진 유럽의 경우 어떻게 전문성을 존중하고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는지를 추적해 보는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사고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양초롱 위원 : -처음에 업무 보고했던 내용과 겹치는 게 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게

시청 방법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검색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봤다. 그중 과거에는 홈페이지 기반의 다시 보기가 됐다면 지금은 유튜브 중심의 플랫폼이다.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 검색이 어떻게 다가오는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키워드 관련된 검색이든가 프로그램 자체가 브랜딩 돼서 검색할 수 있는 게 있다. 또 알고리즘에 의해 노출되는 게 있다. 공영방송에 기반한 플랫폼을 고민한다면 스스로 리서치 하는 프로그램이 시청자의 역량 강화 형태라고 저는 본다. 그렇다면 제가 리서치할 수 있는 수월한 포맷이 필요할 거라고 본다. 3사 플랫폼을 비교해보고 홈페이지를 비교해봤을 때 좀 어렵다. 키워드라든가 영상 검색, 제목명 등이 일괄적인 형태가 아직 없다. 유튜브 채널에도 재생목록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한 정리나 MBC가 추구하는 콘텐츠 방향,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핑크피쉬> 관련 부분에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 초기에는 다큐멘터리에 기반해서 특정 콘텐츠 흥어, 특정 지역 양동시장은 무리가 없는데, 지역이 한정화되는 것은 논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흥어가 양동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라도 대표 음식인데 이런 부분이 확장되면 좋지 않을까.

-다른 방송사에 비해 개별 채널이 많다. 음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별 채널의 정당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건지, 아니면 특정 채널을 묶어 하나의 채널로 가는 것이 좋은지,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소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

- 정은진 위원 : -다른 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을 보니 방송 중심의 리뷰 중심이다. 시사보도에서 창사특집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초점을 맞춰 하고 있다.
- 박수인 시사보도본부장 : -한국형 뉴딜 사업 중에서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까 살펴볼 예정이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등이 있는데 에너지산업, 생명산업 등 미래성장동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을까 예상한다.
- 정은진 위원 : -시기는 언제인가.
- 박수인 시사보도본부장 : -10월이다.
- 정은진 위원 : -광주에서 8월 말에 에너지 자립 2.0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공유하고 있다. 작년 7월, 8월 광주에서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그린뉴딜 선언을 했고 1주년을 맞아 에너지 자립2.0을 준비하고 있다. 상무지구에 한전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주는 에너지파크 개소식을 8월말쯤 하는데 그때 맞춰서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보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기왕에 창사특집으로 광주형 그린뉴딜, 전남형 그린뉴딜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감한 계획이 과연 현실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체크해 주면 좋겠다. 언론이 이 부분을 전혀 다루지 못하고 의제화도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이 실제로 같이 공동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면 집중적으로 다뤄주면 좋겠다. 특히 호남 에너지 공동체를 해서 2050년 RE300을 발표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체계화된 보도가 이뤄지면 좋겠다.
- 최영호 위원 : -<오매 전라도> LTE-광주광역시 선별진료소 연장 운영 코너에서는 최근 델타 변이 전파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한 가운데 시기적절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졌다. 실무자 발언을 토대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거리 두기 상황에 따

른 행동지침, 이에 따른 당부사항을 전달하여 시청자가 관련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선별진료소 연장 운영에 대한 안내와 함께 선별진료소 근무 직원들의 노고를 보여주는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이지 않는 노력을 조명해줌으로써 의료진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모두가 힘든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민에게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던 점도 진한 호소력이 느껴졌다. 다만 선별진료소 현장에서 방송을 진행하여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으나 카메라의 움직임이 자주 느껴져 화면이 다소 부산스럽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윤근수의 시사본색> 여순사건 특별법, 달빛내륙철도 편에서는 우리 지역과 직결되는 이슈인 여순사건 특별법과 달빛내륙철도사업을 주제로 자연스레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해당 법안의 주요 발의자인 소병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조오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패널로 초빙하여 법안 발의 전후 배경 및 취지,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제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추가로 단순한 법안 통과 사실을 넘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를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달빛내륙철도사업의 경우 경제성 중심의 기존 예비타당성조사가 미처 담지 못한 지역균형발전 등 상생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일부 부정적 인식 해소에 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주제를 사회자의 적절한 시간 배분과 질의로 프로그램에 몰입하게 하며 완성도를 높였다고 생각한다.

- 류한호 위원장 : -<윤근수의 시사본색>에서는 섬진강 범람 1년 관련 리포트를 했다. 2020년 8월 7일 폭우로 인한 섬진강 범람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원인 규명도 안 되고, 복구도 미흡하고, 사후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 관련 보도했는데 다방면의 취재를 통한 섬세한 접근이 눈에 띄었다. 2021년 7월 2일 진상규명 관련 용역 중간보고서 발표에 따른 취재 보도했는데 범람의 원인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집중호우에 의한 천재지변인지, 인재인지 원인 규명이 안 되니 사후처리도 늦어졌다. <뉴스데스크>에서 <곧 장마 닥치는데 곡성산사태 현장은 불안>, <섬진강 수해 원인조사 임박.. 관심 집중> 기사가 있었는데 추가 후속 보도에 대한 바람이 있다. 원인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다. 천재와 인재의 복합적 요인이 결합하여 나타났을 것이다. 책임의 비중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지금 문제는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지난 1년간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피해구제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했는지, 이 시점에서 관련 주체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재발할지도 모르는 재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취재 보도할 필요가 있다.

-<오매 전라도>에서 장마 본격화, 전남지역 집중호우 관련 방송이 있었다. 피해 지역 현재 상황을 소개했다. 작년도 홍수피해 상황과 복구, 대응 방향에 대한 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인터뷰와 주민 인터뷰 등으로 생동감 있게 진행했다.

- 김순정 위원 : -섬세하게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겠다. 평소 MBC를 보려고 노력하면서 보도나 시사를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대선, 경선이 있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보게 되었다. 저랑 공통의 의견이 많이 나왔다. 후보들 나와서 하는 게 어떤 채널이나 비슷한 것은 문제가 있다. 중앙에서 다루는 후보들 이야기도 대선에서

주목할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방송에서 특히 광주MBC에서 후보를 모시고 대담을 하거나 토론한다면 지역의 현안, 피부에 와닿는 문제를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제안하고 질문하고 그분들이 고민하게 만드는 형태가 되면 좋겠다. 광주MBC에서 후보 대담한다고 하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정말 지역의 문제를 제대로 분석해서 그분들에게 고민하게 하는 방송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면 지역민에게 신뢰를 줄 것이다.

○ 이상석 위원 : -코로나 끝나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가 없다. 예전과 같은 방식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과 같이 갈려고 하는데 자연은 인간이 필요 없을 때도 있다. 광주는 기껏해야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을 진행하는 정도 그 폭을 못 벗어나고 있다. 내륙철도 관련해서 사실은 광주시가 당혹스러울 것이다. 광주시가 예타면제를 요구했던 것은 광주의료원이다. 코로나 시대에 전염병을 대비하는 게 좋은 호재였다고 본다. 예비타당성 들어가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장밋빛 환상을 언론이 불러일으킨다. 실체를 정확히 보고 가면 좋겠다. 구례 수해 관련해서는 왜 인재인가만 보는데 왜 매년 수해가 일어나면 복구를 제때 못할까. 사실 중앙정부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돈이 남아돌아도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걸 안 한다는 것이다. 좀 다른 관점에서 언론이 집중을 해줘야 한다. 왜 일어났는가만 보고 있는데 그 후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방정부 힘으로는 할 수 없나. 놓고 있는 돈은 없나. 결산 끝나고 8월 되면 이월되는 돈이 천억대가 된다. 그런 부분 언론이 부각시키고 보면서 중앙정부만 보고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 류한호 위원장 : -독 터진 서시천은 구례 관할이고 섬진강 본류는 전라남도 아니면 국토부 관할이다. 그런 부분들도 잘 따져서 책임져야 할 지방정부에서 잘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면 좋겠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답변 바란다.

○ 윤행석 콘텐츠본부장 : -김요수 위원 말씀하신 캠페인 관련 부분, 짧지만 임팩트가 있는 방식으로 각인효과를 줄 수 있는 걸 기획하고 반영하면 좋겠다는 지적 감사하게 생각한다. 와닿는 부분이 로고 송이나 음악을 활용할 경우에 특히 라디오는 이런 게 방송에 감성적으로 잘 스며드는 것 같다. 이런 지적사항 잘 반영해보도록 하겠다. 양초롱 위원님이 디지털콘텐츠 방향에 대해 들여다보고 지적해주셨다. 저희가 해보면 공급자와 소비자의 마인드가 다른 것 같다. 지상파 제작은 공급자의 관점에서 가진 것을 제시, 제공한다. 디지털 채널 운영을 해보면 소비자들이 답을 정해주는 것 같다. 댓글이 달리고 조회 수로 수치화 된다. 유튜브에서는 댓글과 조회 수가 다 나와버리기 때문에 발가벗겨진 기분이 든다. 소비자들의 반응이 없고 조회 수가 없으면 그냥 내린다. 지상파와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지적해주신 부분은 알겠다. 저희가 다른 시장에서 안 파는 걸 팔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색깔 있게 키우고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양동시장 부분은, 흥어 비하 이미지를 역발상으로 다양한 변주를 해보려고 했다. 양동시장과 매칭이 되어서 해보게 됐다. 더욱 발전시켜나갈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 점 유념해서 참고해서 진행하겠다.

○ 박수인 시사보도본부장 : -<윤근수의 시사본색>에 대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하겠다. 왜 이 시점에 여순사건 특별법, 왜 이 시점에 달빛내륙철도인가. 여순사건 특별법은 이 시점을 골라 통과시킨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발의되고 무산되고 했다.

정치권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본다. 왜 이 시점에 필요한가라고 말한다면 이 사건에 대해 모르는 분도 있고 짧은 시간에 설명이 충분히 안 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 달빛내륙철도도 다른 접근을 해본다. 왜 광주시장이 이걸 해야 한다고 했을까. 물론 지방과 수도권 간의 수직적인 연결고리에서 지방과 지방간의 수평적인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광주와 대구가 연결됐을 때 수평적 연결고리 안에서 뭐가 이뤄지고 어떤 물건이 오고 갈지 잘 모르겠다. 정작 우리가 정치권이나 지역에서 언론이 해보자 하는 사안은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희도 고민하도록 하겠다. 일방적인 정치권의 예타 면제에 대해 주장에 대해 반대 토론이 없었던 건 아쉽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논의되지 않도록 제작자에게 전달해서 개선되도록 하겠다. 사고 현장에 대한 문제점,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원인 분석이 돼야 한다는 부분은 붕괴 원인에 대한 지적인 것 같은데 지금 언론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여러 차례 사고를 거쳐서 매뉴얼이 개선되고 만들어졌는데 심지어 그것만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왜 이게 지켜지지 않은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언론은 뭘 했느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이것만 지켜어도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동안 반복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가 개선되고 매뉴얼이 고쳐지고 했는데도 그것마저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전파를 할애하고 있다. 국과수에서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구례 수해는 왜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는지를 행정절차나 그걸 이행하고 하는데 1년여가 허비되었다. 특별재난구역 선포되고 이런 부분은 보상뿐만 아니라 복구에 있어서도 빨리 처리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후속 보도를 하려고 한다. 왜 그럼 예산이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이런 부분은 취재를 해보겠다. 많은 분이 지적하셨던 대선에 대한 보도. 후보들에게 지역 아젠다 현안을 뽑아서 질의를 한다. 회신을 받아서 분석을 해서 보도한다. 근데 정말 관심이 없다. 이런 거 가지고 보도를 했을 때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여론을 선도해가며 말씀하시는데 시청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안 본다. 뉴스 소비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 공약에 대한 현안 보도는 할 것이다. 에너지 문제에는 저도 관심이 많다. 시에 물어볼 기회가 있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수소가 대안인가. 집집마다 태양광 해서 나온 전력으로 자립하고 이런 애길 한 적이 있다. 여러 가지 동시 달성을 위해 대안으로 제시됐던 게 호남RE300이다. 생산과 소비가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로 화석 연료를 대체하고, 생산과 소비가 광역단위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좋은 기회인 것 같다.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 취재를 안 해봐서 모르겠다. 이 부분에 대해 취재 보도하고자 취재기자들과 토론하고 얘기하고 있다. 전면적인 에너지 전환이 이뤄졌을 때 비용이나 산업계의 문제 등에 대해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다.

- 김낙곤 사장 : -오늘 말씀해주신 것처럼 캠페인이란 이름으로 계도, 가르치려 들고 방송사가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이 든다. 무슨 캠페인이다 하는 형태가 과거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시민과 함께한다면 시민을 모시고 떠받드는 방송사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위원님들 말씀 속에 저도 힌트를 얻었다. 대선 보도와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고민이 많았다. 지역 현안에 대해 물으면 박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인기가 없고 왜 시청률 안 나오지만 그럼에도 해야 한다, 그

방식은 우리 지역사회가 달빛내륙철도를 원했는지 아니면 글로벌모터스를 원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원했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의제를 생각하고 고민해서 훈련이 된다면 우리 방송사에 초청을 받은 대선후보들도 저 대답은 반드시 하고 가야 한다는 것, 무언가를 만드는 힘을 갖는데 방송사가 역할을 해야지 않을까. 그런 질문들이 잘 정리 된다면 시청자들도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그런 질문이 없으면 서운하고 뉴스 아이템과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 미래 에너지 관련 등 좋은 제안 해주셔서 프로그램 제작자, 뉴스 만드는 모두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여러 고견 감사드린다.

- 류한호 위원장 :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다. 다음 회의에도 생산성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